

대상, 일본 클로렐라 3사 인수

일본 대형시장 공략 본격화 ... 2004년 일본수출 60억원 기대

국내 클로렐라 1위의 대상이 일본 클로렐라 시장 공략에 나선다.

대상은 일본의 클로렐라 제조기업인 차오, 차오푸드와 판매기업 클로렐라서플라이 등 3사를 지분 투자를 통해 인수했다고 11월16일 밝혔다.

대상 관계자는 “일본 시장에서 제조 및 판매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현지 기업을 인수하게 됐다”며 “일본기업 인수를 계기로 일본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”이라고 설명했다.

클로렐라는 담수에서 생활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단백질, 엽록소, 미네랄 등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 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.

대상은 2003년 일본시장에 45억원의 클로렐라제품을 수출했으며 2004년 1-10월에도 50억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. 2004년 전체로는 일본수출액 60억원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<화학저널 2004/11/17>